

수상한청춘학교 1기 마무리잔치 발표회 열어



지난 해 11월 초 개교한 실버문화복지공간 수상한청춘학교(교장 김혜란)가 2월 28일 4개월의 1기 교육생 교육과정을 마감하고 마무리잔치 발표회와 전시회를 가졌다.

수상한청춘학교 강당에서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교육 수강생을 비롯 가족과 이웃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교육생들의 작품과 공연을 감상하고 축하와 덕담을 나눴다.

65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수상한청춘학교는 4개월 동안 배우고 익힌 교육생들의 수업 내용을

생활도자기, 그림과 이야기, 일상드로잉으로 구성된 전시회와 민요합창, 장구 연주, 텀드럼 악기연주 발표회를 마련하였고 교육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발표회를 마치고 난 후에는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함께 모여 떡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축과 티를 벌이기도 하였다.

한편 청춘학교 2기는 3월 6일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며 모든 교육과정과 식사 등이 무료로 이뤄진다. 청춘학교 참가 대상은 수산, 덕산, 한수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이다.

박정현 마을기자